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김영미¹⁾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3차년도 자료 중 초4~6학년 1,4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는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셋째,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넷째,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긍정적 신체상 형성과 사회성 훈련을 통한 사회적 지지 체계 확립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I. 서론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4조). '2018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9)'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12년 670만에서 2019년 550만으로 매년 20만 명 정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2년 4만 6천명에서 2019년 13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1)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

진입속도의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18세 미만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12세 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로 영아기부터 학령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교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청소년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가 되어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로부터 습득한 가치관, 생활양식,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의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 상황에서 부적응, 정체감 혼란, 낮은 자아존중감, 학습부진, 문제행동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Congress & Gonzalez, 2012; Palaiologou, 2007; Smokowski, David-Ferdon, & Stroupe, 2009).

이 중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평가로 개인의 적응과 성격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전생애주기 단계에서 행복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지수로 알려져 있다(박찬인·양정빈, 2010; Coopersmith, 1967; Kenny & Adriana, 2009). 자아존중감은 친구, 부모,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재조정되며 자아존중감의 기초가 되는 영아기를 거쳐 학령기 중후기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아존중감 발달은 연속적 개념이므로 성인기에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학령기에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인지, 사회·정서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주로 성인기까지 안정되게 유지된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즉 초기의 자아존중감이 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어려움이나 외부 스트레스부터 보호요인이 되어 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원재순·김진숙, 2016; O'Mally & Bachman, 1983; Toro & Nieri, 2018).

학령기는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또래를 통해 사회적 기술이나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갖게 된다. 또래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로서 가족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와 다르며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안전기지 발달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적 기능을 한다(권혜진·성미영, 2014; Mota & Matos,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박경리·김경연, 2001; 정지민, 2015; 정희선·박성연, 2010). 반면에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

정적 또래 경험을 한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설희·박보경·도현심, 2015; 장윤정·신유림, 2010; Caldwell, Rudolph, Troop-Gordon et al., 2004). 따라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 아동이 또래에게서 얻는 긍정적 자원인 지지는 이후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

한편 과거에 비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져 2차 성장을 겪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시기에 아동은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달과업을 성취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외무중시 풍조가 아동에게까지 전이되어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체만족도는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사회적 인정 요인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신체만족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Dohnt와 Tiggemann(2006)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만족감은 대중매체나 유의미한 타자 등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외모의 아름다움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부정적 신체상이 고착되어 열등감이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면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Abell & Richards, 1996; Kostanski & Gullone, 199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는 높은 신체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우울과 불안을 낮춰 학교생활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귀란·유형근·신효선, 2009; 노보람·정정화·최아나 외, 2019). 이와 반대로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낮고 신체상이 부정적인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게 하는 이유가 된다(이윤정·유희·이정임 외, 201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가족, 교사, 친구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미·최인려, 2011; 노보람·정정화·최아나 외,

2019). Harter(1993)는 다른 어떤 세부적 자기평가 영역보다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자각이 자아존중감을 예언하는데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하며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김귀란·유형근·신효선,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이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은 또래들과 외모나 신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체만족도와 함께 또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Paxton, Schutz, Wertheim et al., 1999). 학령기와 청소년기는 또래와 동질감과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면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Freeman, Choate-Summers, Moore et al., 2007). 또래로부터의 배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소외감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신체에 대한 정보와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될 수 있다(최경일·조성심, 2014). 이에 반해 아동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신체 변화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2019)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 협박과 욕설 61.9%, 집단 따돌림이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 중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만뒀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이 23.4%에 달했다. 이처럼 또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거부와 무시를 당한 아동은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또래의 모습과 다른 자신의 신체적 조건으로 귀인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또래와 다른 외모, 피부색, 체형을 가졌더라도 집단 내에서 수용되고 지지받는다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게 되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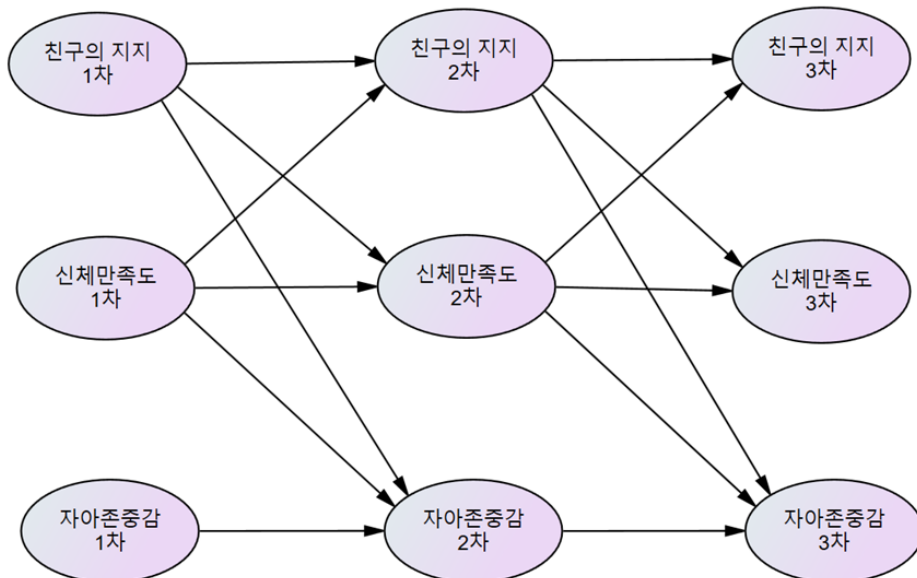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외부평가에 덜 방어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개념으로 초기의 자아존중감이 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O'Malley & Bachman, 1983) 다른 변수들과도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

했으며 심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또래의 지지와 자신에 대한 신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안정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를 사용하였다. MAPS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차년도(2011년)부터 3차년도(2013년)까지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수는 결측치 192개를 제외한 1,443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차년도를 기준으로 만12세가 1,273명(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1.97($SD=.37$)세였다. 성별은 남아 706명(48.9%), 여아 737명(51.1%)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1,386명(96.0%),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54명(3.3%),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3명(.2%)이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33.7%), 필리핀(24.8%), 조선족(19.1%) 순으로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어머니 41.3%, 아버지 43.6%). 거주 지역은 경인지역(27.2%), 경상권(23.4%), 전라 및 제주권(20.4%), 충청 및 강원권(18.6%), 서울(10.4%) 순으로 높았다.

2. 측정도구

가. 친구지지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의 7개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95, 2차년도 .96, 3차년도 .97로 나타났다.

나. 신체 만족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신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인섭(1983)이 개발하고 임재련(1988)이 재구성한 자아개념 척도를 한상분(1992)이 수정한 문항 중 6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 7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71, 2차년도 .74, 3차년도 .73로 나타났다.

다.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가 개발하고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수정한 16문항 중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총 4문항이며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75, 2차년도 .79, 3차년도 .8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의 특성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따른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변수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Curran & Bollen, 2001). ARCL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으로 나뉘며, 자기회귀모형은 $t-1$ 시점의 변수가 t 시점의 변수를 설명하고, $t+1$ 시점의 변수는 t 시점을 설명한다. 교차지연모형은 서로 다른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전제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를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RMSEA, TLI와 CFI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RMSEA는 .06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왜도의 절대값과 첨도는 1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은 동일한 측정시기와 측정시기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친구 지지	1차	-								
	2. 2차	.47**	-							
	3. 3차	.41**	.50**	-						
신체 만족도	4. 1차	.43**	.28**	.24**	-					
	5. 2차	.27**	.48**	.30**	.42**	-				
	6. 3차	.27**	.34**	.46**	.38**	.50**	-			
자아 존중감	7. 1차	.44**	.31**	.29**	.60**	.31**	.27**	-		
	8. 2차	.32**	.53**	.36**	.35**	.62**	.40**	.43**	-	
	9. 3차	.30**	.35**	.54**	.31**	.36**	.59**	.41**	.48**	-
<i>M</i>		3.81	3.90	4.01	2.72	2.79	2.85	3.13	3.17	3.22
<i>SD</i>		.89	.84	.83	.61	.61	.58	.55	.55	.53
Skewness		-.53	-.57	-.59	-.24	-.26	-.22	-.36	-.25	-.12
Kurtosis		-.06	.12	-.02	.19	.34	.52	.10	-.17	-.63

** $p < .01$.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순차적으로 세 가지 동일성 검증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첫째, 측정동일성 검증은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여 각 시점의 변수가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둘째, 경로동일성 검

증은 각 잠재변수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여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셋째,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의 오차항 간의 공변량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저 모형과 14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세 가지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고 15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해가며 가장 설명력 있는 최적의 모형을 탐색하였다(표 2).

〈표 2〉 연구모형에 따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모형		설명
기저	모형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2	친구지지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신체만족도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자아존중감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동일성	모형5	친구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신체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신체만족도에 대한 친구지지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9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구지지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1	친구지지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2	신체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오차 공분산	모형13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4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5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RMSEA, TLI와 CFI 지수를 확인하였다. χ^2 은 표본 크기와 복잡한 모형에 민감하므로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로 추가 확인하였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01 이내로 변화하여도 동일성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 점을 참고로 〈표 3〉과 같이 모형을 비교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표 3〉 연구모형에 따른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모형

	χ^2	<i>df</i>	RMSEA	TLI	CFI	$\Delta\chi^2$
모형1	4092.48	877	.047	.932	.943	-
모형2	4099.22	889	.047	.933	.943	6.74
모형3	4139.42	895	.047	.933	.942	40.20
모형4	4157.62	901	.047	.933	.942	18.20
모형5	4159.91	902	.047	.933	.942	2.29
모형6	4159.92	903	.047	.933	.942	.01
모형7	4160.00	904	.047	.933	.942	.08
모형8	4160.00	905	.047	.934	.942	0
모형9	4160.02	906	.047	.934	.942	.02
모형10	4160.02	906	.047	.934	.942	.02
모형11	4160.09	907	.047	.934	.942	.07
모형12	4164.15	908	.047	.934	.942	4.06
모형13	4168.95	909	.047	.934	.942	4.80
모형14	4171.61	910	.047	.934	.942	2.66
모형15	4172.60	911	.047	.934	.942	.99

기저모형인 모형1과 측정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2~4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FI는 .01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RMSEA와 TLI값은 차이가 없어 측정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5~7을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즉,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1차년도($t-1$) 값이 2차년도(t)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2차년도(t) 값이 3차년도($t+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8~12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는 친구지지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지연회귀효과와 신체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지연회귀효과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13~15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오차공분산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결론적으로 동일화 제약이 추가되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으므로 가장 간명한 모형 15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장 많이 가한 최종모형 15의 적합도 지수는 RMSEA값은 .047로 기준치 .06이하, TLI값은 .934, CFI값은 .942로 기준치 .90이상으로 모두 권장수용기준에 맞는 적합도를 나타냈다.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검증

최종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구조계수의 추정치는 <표 4>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본 결과, 세 시점(1, 2, 3차년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동안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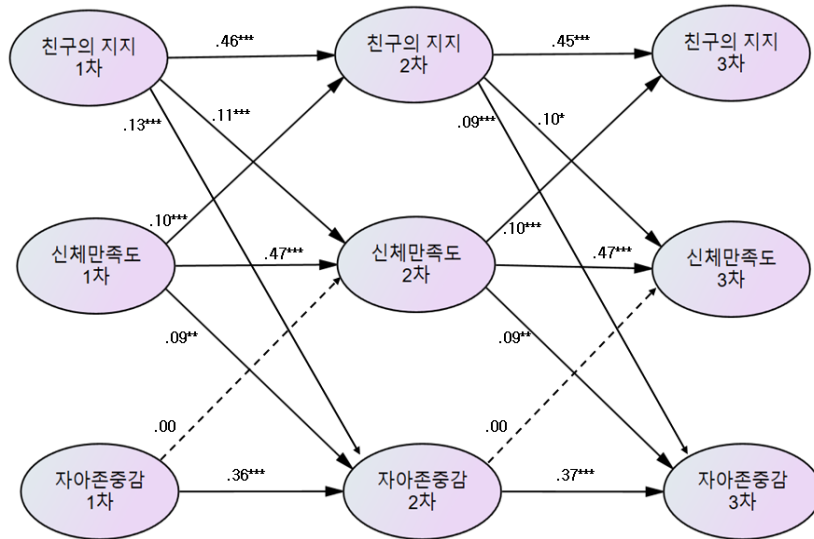
둘째,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계를 회기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았다. 교차지연 계수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1차(초4)시점의 친구지지에서 2차(초5) 신체만족도의 경로, 2차(초5) 친구지지에서 3차(초6) 신체만족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또래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를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1차(초4) 친구지지에서 2차(초5)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 2차(초4) 친구지지에서 3차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아동은 1년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차(초4) 신체만족도에서 2차(초5)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 2차(초5) 신체만족도에서 3차(초6)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일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차(초4) 신체만족도는 2차(초5) 친구지지로의 경로, 2차(초5) 신체만족도는 3차(초6) 친구지지로의 경로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친구의 지지를 높이는 영향관계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대의 관계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C.R.	β
1차 친구지지 → 2차 친구지지	.44***	.02	23.45	.46
1차 친구지지 → 2차 신체만족도	.08***	.02	4.84	.11
1차 친구지지 → 2차 자아존중감	.08***	.02	4.66	.13
1차 신체만족도 → 2차 신체만족도	.47***	.03	15.93	.47
1차 신체만족도 → 2차 친구지지	.14***	.03	4.96	.10
1차 신체만족도 → 2차 자아존중감	.08**	.03	2.98	.09
1차 자아존중감 → 2차 자아존중감	.37***	.03	11.61	.36
1차 자아존중감 → 2차 신체만족도	.01	.03	.03	.00
2차 친구지지 → 3차 친구지지	.44***	.02	23.45	.45
2차 친구지지 → 3차 신체만족도	.08*	.02	4.84	.10
2차 친구지지 → 3차 자아존중감	.06***	.02	3.35	.09
2차 신체만족도 → 3차 신체만족도	.47***	.03	15.93	.47
2차 신체만족도 → 3차 친구지지	.14***	.03	4.96	.10
2차 신체만족도 → 3차 자아존중감	.08**	.03	2.98	.09
2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37***	.03	11.61	.37
2차 자아존중감 → 3차 신체만족도	.00	.03	.03	.00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최종모형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초등학교 4~6학년에 해당되는 3개년도 자료(1~3차)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과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연속적 개념이지만 아동기가 결정적 시기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접어든 다문화 아동은 또래와 다른 자신의 신체와 2차 성장으로 인한 신체 변화에 따른 자아개념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학년을 첫 시점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3년의 시간동안 정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이 될 때까지 직접적인 외부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학급에서 친구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와 인정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정지민, 2015; Ladd & Kochenderfer, 1996).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문화 아동은 이후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도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급 내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만족도의 높은 안정성은 또래와는 다른 외모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한 아동은 중학교에 진입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신체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학년으로 진입하기 전 또래와 다른 피부색, 외모, 체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브나 SNS에서 일반인들도 성형, 뷰티, 다이어트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면서 외모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통념화 속에서 왜곡되고 있으며 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외무중심경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는 다른 피부색, 머릿결, 체형 등으로 인해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인지적 편향을 갖게 하여 부정적 자

아개념과 신체상을 형성하게 한다(김균량·이완정, 2008).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강화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도록 건강한 신체상을 저학년 때부터 확립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는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 급등과 2차 성징의 출현으로 많은 신체 및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 아동이 외모의 차이나 부모가 다른 문화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잘 어울리지 못할 경우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에서 부적응현상을 보일 수 있다(김성수, 2019; Sampson & Laub, 2006).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부모나 교사가 또래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중재와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신체에 대한 지각이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Harter(1993), 김귀란, 유형근, 신효선(2009)과 심우엽(2012)의 의견을 지지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타인과는 다른 외모와 낮은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위험이 높다. 국내 연구(오성배, 2005)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 비행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에 대한 외모와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건강한 자아개념 발달과 친밀한 또래관계를 돕고 더 나아가 학교부적응,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또래로부터 지지를 얻어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심리적 적응을 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보호요인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기 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긍정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신체만족도는 1년 뒤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자아

존중감은 1년 뒤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신체지각이나 신체만족도가 다른 자아존중감 하위변수들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피부색, 얼굴생김새, 체형 등 또래와는 다른 자신의 선천적 특성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교육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외모연출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아존중감은 16개 중 4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중타당도는 .81~.98로 높은 편이었으나 전체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친구와는 다른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외적인 모습만을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면화된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태도, 평가의 의미를 가진 신체이미지는 자기개념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한 외모중심경향이 심리적 미성숙 상태인 발달적 단계와 맞물려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부모 관계, 리더십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녀종합지원서비스(다재다능),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매일 마주하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등에 대한 개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래관계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매우 큰 보호요인이

자 사회적지지 체계이므로 한국 문화에 맞는 정서나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화와 외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를 종단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한국사회 적응에 기여하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http://www.law.go.kr>
- 권혜진·성미영(2014).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95-403.
- 김귀란·유형근·신효선(2009).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 및 사회적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놀이중심 REBT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8(1), 157-168.
- 김균량·이완정(2008). 아동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 만족도에 따른 자기표현과 대인불안. *아동과 권리*, 12(4), 567-584.
- 김성수(2019). 다문화가정 아동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963-97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미·최인려(2011).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3), 69-80.
- 노보람·정정화·최나야·이강이(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 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7(3), 407-417.
- 박경리·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지지 및 또래 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난숙·오경자(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1(1), 235-248.
- 박찬인·양정빈(2010).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7, 41-65.

- 송인섭(1983). 인간심리학과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심우엽(2012).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5(4), 31-51.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263-271.
- 원재순·김진숙(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유설희·박보경·도현심(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 이윤정·유희·이정임·정재은(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5), 733-742.
- 임재련(1988). 청소년 자아 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윤정·신유림(2010). 또래 괴롭힘 피해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자아 지각 및 또래 신념의 매개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10), 25-36.
- 정지민(2015).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3(3), 97-115.
- 정희선·박성연(2010).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9-33.
- 최경일·조성심(2014).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한여중생의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9, 209-236.
- 통계청(201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https://kostat.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http://www.mogef.go.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7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http://www.nypi.re.kr>
-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13(2), 145-160.
- Abell, S. C., & Richards, M. H.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hap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 investigation of gender and class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5), 691-703.
- Caldwell, M. S., Rudolph, K. D., Troop-Gordon, W., & Kim, D.-Y. (2004). Reciprocal influences among relational self-views, social disengagement, and

- peer stress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4), 1140-115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ongress, E. P., & Gonzalez, M. J. (2012).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families*.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Freeman.
- Curran, P. J., & Bollen, K. A. (2001). *The bes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s*. In Collins, L. M., & Sayer, A. G. (Eds.), *Decade of behavior: New meth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 107-13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ohnt, H., & Tiggemann, M. (2006). The contribution of peer and media influences to the development of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young girls: A prospectiv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929.
- Freeman, J. B., Choate-Summers, M. L., Moore, P. S., Garcia, A. M., Sapyta, J. J., Leonard, H. L., & Franklin, M. E. (2007).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for young children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61(3), 337-343.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elf-esteem*, 87-116(pp). Boston, MA: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M. C., & Adriana, M. (2009). Children's self-concept: A multicultural comparis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3), 207-212.
- Kostanski, M., & Gullone, E. (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255-262.
-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ota, C. P., & Matos, P. M. (2013). Peer attachment, coping, and self-esteem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kil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1), 87-100.

- O'Malley, P. M., & Bachman, J. S.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2), 257-268.
- Palaiologou, N. (2007). School adjustment difficulties of immigrant children in Greece. *Intercultural Education*, 18(2), 99-110.
- Paxton, S. J., Schutz, H. K., Wertheim, E. H., & Muir, S. L. (1999). Friendship clique and peer influences on body image concerns, dietary restraint, extreme weight-loss behaviors, and binge eating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2), 255.
- Sampson, E., & Laub, P. (2006). I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y*, 33, 789-798.
- Smokowski, P. R., David-Ferdon, C., Stroupe, N. (2009). Acculturation, youth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minority adolesce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 209-214.
- Toro, R. I., & Nieri, T. (2018). Parent-child acculturation and cultural values difference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self-esteem and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6, 1-11.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 논문접수 8월 5일 / 수정본 접수 8월 28일 / 게재 승인 9월 16일
- 교신저자: 김영미,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 nada03001@skku.edu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im Youngmi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multicultural children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 total of 1,443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waves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ere consistently stable over time. Second, friend support at the previous time point had an effect on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Third, body satisfact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significantly affected friend support and self-esteem positively at the next time point. Lastly,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body satisfaction at the next time poin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allow children to form a positive physical image of themselves, and support peer relations through social training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eywords: multicultural child,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